

#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서기 2002년) 3월 6일 수요일 (주간)

제 359 호

봉사는 불교의 생명선 02)745-8503  
 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대전 논산시 인연동 승정리

## 불교 자원봉사자 다시 급증

IMF여파 회복, '연꽃마을' 개인 4배, 단체 5배나

노력봉사 많아... 프로그램 다양화 시급  
 "통합관리시스템·상시 재교육 필요"

97년 IMF 이후 지난 3년간 불교 자원봉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봉사분야는 여전히 단순 노력 봉사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꽃마을(여사장 각현이) 2월 25일 내놓은 '2001년도 연꽃마을 자원봉사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는 99년 1,040명에서 2001년 3,86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단체봉사팀의 경우 99년 21개 팀에서 2001년 115개 팀으로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는 불교계 사회복지 전반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조계종복지재단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99년 18,522명에서 3만 여명으로 60% 늘어났고,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400여명에서 800여명으로 200% 증가했다. 또 전국 40여개 지역복지

관들도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150%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교자원봉사자의 가파른 증가는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일부 복지단체가 보상 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관리도 한몫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원봉사단체의 급증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직장직능단체들의 참여가 높아졌고, 개별 사찰별 자원봉사팀이 많이 구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자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 등 단순 노력봉사가 8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밖에 가정봉사원(9%), 음식조리(2%),

40대가 841명(34.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돼, 남성봉사와 20~30대 젊은 연령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꽃마을 법인사무국 김종필 과장은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상시적인 봉사자 재교육 실시, 불교자원봉사단체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a.com



3·1절 83돌...원각사지 10층석탑 1년만에 재공개

국보 2호 원각사지 10층석탑을 1년만에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31절 83주년을 기념해 독립선언사가 남쪽된 31운동발상지인 탑골공원을 1일 재개장함에 따라 봉과 위험 등으로 특별안전진단을 마친 원각사탑이 공개됐다. 사진=고영배기자

## 종교·기부금단체 증여세 면제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종교단체 및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는 3월부터 기부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월 24일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 면제를 골자로

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관련 상속 증여세법이 일원화돼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자동으로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이 일치되지 않아 기업이 재산을 기부할 경우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기부받은 단체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키 위해 마련됐다.

김원우 기자 www11@buddhapa.com

## 범불교도결의대회 추진위 발족

대회후 사찰수호 공동대책위 체제로

5일 개최되는 자연환경보존과 수호환경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결의대회 추진위원회가 공식 결성됐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2월 27일 회의록을 열고 추진위원장에 성타 스님(법국사 주지), 집행위원장에 현고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을 선출하고 결의대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다. 이날 범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 격려사, 수석사 주지 법장 스님의 각종 환경침해에 대한 대정부 요구, 중앙종회부의장 청화 스님의 결의문 채택, 사부대중 30명의 연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 추진위는 곧바로 '사찰수호환경 수호를 위한 범불교공동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사찰수호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범불교계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한다. 또한 사찰수호환경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립사찰에 현행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문화환

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제도가 도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공식 촉구할 방침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il@buddhapa.com

새연재 '임제록 강의' 8면 3·1절 친일불교 관련 해봉 스님 특별기고 22면

법적 조대 운하 스님 통도사 한주

"도를 닦는다고 생각을 하면 진리의 세계로 확실하게 나를 이끌어 스승에게 생사를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순서가 정연한 겁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힌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진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13면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연꽃시니어 봉사단'의 회향

지난해 11월 통계청 인구추계 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령인구 339만 명.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 시대에 부담주는 세대 이걸 당당히 거부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세대'로 거듭나기를 선언한 노인자원봉사 단체가 생겨나고 있다.

2월 23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발족한 '연꽃시니어봉사단'

에서란 머플러하고, "사회에 회향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겠다"며 의욕도 보이고 있다.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작은보시' 큰 자비운동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고,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찾아가는 '꾸민 하늘 보여주기 운동'까지 계획하고 있다.

봉사단이 본격적인 자원봉사를 나서게 된 것은 2000년 11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



음식을 쓰레기를 줄입니다

해 위안부 할머니들과 '웃기대향' '노래자랑' 등을 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되면서부터다.

하지만 봉사단의 실질적인 출발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단장을 비롯해 단원들은 봉은연화대학 동문들로 사찰 내 환경봉사를 물론,

매주 일요일 4시간씩 무료진료 소인 봉은선재마을 의료회'의 안내, 차 대접, 청소 등 허드렛일을 도맡아 했다. 이리다보니 봉은사 신도들이 이들에게 자원봉사 골수메니아라는 직감은 별명까지 붙여줬다. 봉사시간이 200시간 넘게 쌓여, 작년 12월 '2001 송파구 자원봉사자 연말대회'에서 상까지 받았다.

봉사단 단장 김상인 할머니는 "발기만 하다가 베풀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하게 되자, 환경심까지 들더군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열심히 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김철우(취재 1부 기자)

###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영주 착용

1. 불자님은 항상 영주를 지니고 다니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2. 지닌다면 그 이유는?  
 ①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기 위해 ②장식용으로  
 ③불자라는 자부심으로 ④포교에 도움이 되므로
3. 지니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①귀찮아서 ②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③남들에게 거부감을 줄까봐

설문 참여: 3월 7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편집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60호 9면에 실립니다.

## 불교종합복지관 건립 기공식 및 산사음악회



**기공식**

법왕사에서는 연건평 3천평의 불교종합복지관 기공식을 교계 큰스님들과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오는 3월 11일 봉행합니다. 10여년간 준비한 대작불사의 첫삽을 뜨는 이날 기공식에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빠짐 없이 동참하시어 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명 정무 큰스님 주지 실상 합장

일시: 3월 11일(월) 오후 2시  
 장소: 법왕사 광장 옆 기공식 현장

**산사음악회**

법왕사에서는 오는 3월 11일 봉행하는 불교종합복지관 건립 기공식을 기념하는 불자 연예인 초청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따뜻한 봄날 저녁, 흥겨운 음악과 함께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장소: 법왕사 광장  
 일시: 3월 10일(일) 오후 7시  
 출연: 김병조(사회), 설문도, 김하정, 이윤희, 임주리, 김성녀, 김태곤, 시영스님, 정률스님

주최: 법왕사 / 후원: MBC, 불교 TV, 불교방송,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 운불연

## 한가족 한평불사 동참안내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처님의 도량을 여법하게 꾸미어 합니다. 내가 기도할 도량을 내 손으로 만들겠다는 발원으로 한가족 한평의 기도공간을 마련합니다. 법왕사가 5천평 대지 위에 연건평 3천평 규모의 불교종합복지관을 건립합니다. 3월 11일 기공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중인 이번 대작불사는 대구의 불자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자들이 신심을 갖고 참여하는 도량이자 복지권이 될 것입니다.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은 화강암에 그 이름을 새겨 드리며 무량한 인연공덕은 길이길이 빛날 것입니다.

■ 동참금: 1평 100만원

- 동참하신 분들은 가족 2명의 이름을 적어 영명록에 포함합니다.
- 동참금은 3년간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우체국 704056-01-000383 법왕사  
 농협 150101-51-004981 법왕사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 116번지 ☎ 766-3747)